

범죄 영화 속 여성·아동 피해 심각성 파헤쳐

·범죄영화 프로파일

이수정·이다혜 외 지음



‘가스등’, ‘적과의 동침’, ‘사바하’, ‘곡성’, ‘결갑스’, ‘살인의 추억’, ‘기생충’, ‘팔려 가는 소녀들’...
위 영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범죄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연쇄 살인 사건, 일기자의 범죄, 아동 성매매 등 범죄를 주요 모티브로 한다.

‘범죄 심리학적 관점에서 영화 속 인물들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박사의 견해다. 이 박사는 또한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힐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경기대 대학원 범죄 심리학과 교수인 이 박사는 최근 ‘씨네21’ 이다혜 기자 등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문제와 해결법을 다룬 책을 펴냈다.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 그것. 네이버 오디오를 읽 문화예술 분야 1위였던 동명의 프로그램이 책으로 출간된 것이다.

“범죄를 엔터테인먼트로 소비하는 매체는 관심없습니다. 여성이나 아동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 영화를 다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책은 방송 제작자들이 직접 밝힌 진행과 제작에 관한 방송 비화가 더해져 우리 사회 약자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네이버 오디오를 통해서 콘텐

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최세희, 영화와 대중문화 글을 쓰는 조영주도 저자로 참여했다.

책은 범죄 영화를 분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범죄 영화에 얼마나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피해자로 소비되고 소외된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주의 깊게 살핀다.

영화로 보는 사건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서울의 전차 살인 사건은 신고가 있었지만 공권력의 소극적 개입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한 경우다. 영미권에서는 몇십 년 간 폭행을 당해 만성화된 피해자 심리 상태를 ‘매 맞는 아내 증후군’ 기준으로 살핀다. 아내의 살해 동기가 분노가 아니라 공포임을 고려해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사 불벌죄로 인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 가정 폭력을 피해자보호보다 가정 보호에 초점을 둔 탓이다.

이 박사는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불법 동영상의 근원을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을 사고파는 걸 범죄라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디지털 성범죄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영화 ‘범죄 심리학 하다’, ‘꿈의 제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등은 아이들



영화로 보는 사건들은 현실 세계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는데, 특히 여성과 성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준다. 사진은 영화 ‘곡성’ 장면.

의 성 착취가 불법 동영상으로 이어지는 배후에 랜덤 채팅 앱이 있다는 것이다.

“앱을 사용하는 여자아이들이 많아 성인 이용자들이 앱으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성인 남성들은 돈을 내고 여자아이들은 돈을 안 내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책에서 다루는 영화들은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미저리’, ‘결갑스’, ‘살인의 추억’ 등은 스토킹 방지법과 온라인 성범죄 단속을 위한 제한적 합성 수사의

필요성을, ‘사바하’, ‘곡성’ 등은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권위와 복종의 문제를 지적한다. ‘기생충’과 ‘조커’를 통해서 빈곤계층과 적대주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책에는 이렇듯 이다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과 이수정 박사의 냉정한 분석 등이 펼쳐진다. 영화 속에서 피해자로 소비된 여성과 아이들, 약자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결론에 이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존재와 죽음 등 삶에서 중요한 9가지 ‘질문서’

천년의 수업

김현 지음



“여러분은 질문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차이나는 클라스’, ‘요즘책방: 책 읽어 드립니다’ 등 TV 프로에 등장해 친숙한 김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부교수가 학교 수업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늘상 던지는 질문이다. 이 때 반응은 비슷하다고 한다.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라는 것.

그는 질문하며 사는 건 많은 질문을 던지는 대신 구체적인 질문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반복해서 계속 물으며 자신의 답을 검토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 걸라잡이로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생생하게 담은 서양 고전, 그 중에서도 ‘문명의 근원’

인 그리스로마신화, 그리스 비극, 역사, 철학 등을 제시한다.

그가 펴낸 ‘천년의 수업-나와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9가지 질문’은 존재와 죽음, 자존과 행복, 타인과의 관계 등 9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삶에서 중요하다고 할 만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저자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 서양 고전이 수천년간 던져온 화두를 우리에게 묻는다.

저자에 따르면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 파악이다.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이제 ‘행동’을 해야 한다. 그 일이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단계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가치를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세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과 윤리학에서 제시했고, 플라톤 역시 자신의 책에서 언급한 것들이다. 첫번째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실용적 판단 또는 경제적 판단이다.

또 하나는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로 판단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다. 나머지는 ‘아름다운가, 추한가?’라는 미학적 관점이다. 저자는 여기에 덧붙여 판단을 내린 후에도 판단을 멈추지 않는, ‘판단중지’를 뜻하는 ‘에포케’(epoche)의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급한 판단을 경계

하고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잠시 멈춰서는 에포케의 지혜는 질문을 끊임없이 지속해 가는 힘이며 곳곳이 행동하면서도 융통성을 갖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 속 인물들과 함께 각각의 주제에 대한 풍부한 사례와 저자 본인이 겪은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편안하고 재미있게 읽힌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시작점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와 ‘진짜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했던 오이디푸스의 삶은 통해 풀어낸다. 또 삶과 죽음의 아이러니에 대한 문제는 고전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와 불멸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의 삶을 선택한 오뒷세우스의 이야기를 통해 질문을 던진다.

〈다산책방·1만6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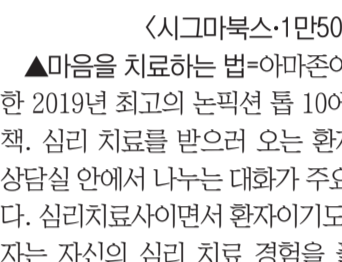
▲살이 찌기만 하고 빠지지 않을 때 읽는 책=형직 의사가 말해주는 나잇살, 만성피로, 통증 잡는 체질 개선법을 담았다. 책의 목적은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으로 저자는 건강한 몸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해 수비를 위한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은 물론, 공격적인 방법으로서의 근육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을 도입한 운동법을 소개한다.



〈현대지성·1만3000원〉
▲2050년 공원을 상상하다=현재 공원은 도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앞으로 공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공원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책. 공원이 환경에, 도시에, 아이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문화와 경제에, 심지어 민주주의에, 그리고 공원 자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질문하고 탐구한다.



〈한숲·1만2000원〉
▲사장의 돈 공부= 연매출 70억 원의 적자기업이 700억 원의 흑자기업으로 변모시킨 기업가이자, 700개 이상의 기업들을 지도해온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저자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나가는 회사들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준다. 크게 5장으로 나누어 회사일부터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돈 쓰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어린이·청소년 책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도서관에서 보내는 루나의 하루를 통해 도서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림책이다. 아빠와 떨어져 엄마와 사는 루나에게 도서관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아빠의 추억과도 만나는 곳이다. 루나는 외로움도 느끼지만 아빠와 함께 읽는 한 권의 책을 통해 위로를 얻고 새로운 추억도 쌓아간다.



▲아기똥고, 저리 개=하루에도 열두 번씩 얹치락뒤치락 다루고 화해하는 형제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형시몽이 애써 만든 불룩을 동생 에드몽이 망기뜨리자 시몽은 속상한 나머지 동생을 발로 차고 귀를 잡아당기며 싸우기 시작한다. 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건 물론, 육탄전을 벌이다 결국 피까지 본다. 하지만 스스로 상대의 감정을 생각해보고 배려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화해한다.



▲마법의 방방= 작가가 직접 타고 보고 그린 방방(트램펄린) 이야기다. 방방을 통해 어린이의 무한한 상상력과 마법 같은 판타지 세계를 담았다. 심심해 마을에 사는 주인공이 심심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자 하늘에서 방방이 떨어진다. 어린이는 방방을 타고 지구 바깥까지 단숨에 날아가 달에서 토끼를 만난다. 작가는 미세먼지, 질병 등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할 때, 책의 주인공을 따라 방방을 타고 떠나보내고 제안한다.



〈미디어창바·1만3000원〉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